

##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에 관한 연구



최석환 군종목사

### I. 서론

#### 1. 문제 제기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마 4:1-11)과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사건(요 21:15-19)을 중심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유혹을

- 
- 약력 :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Ph. D.)  
• 육군 가나안교회 담임목사

말하고 있다.<sup>1)</sup> 그것은 ‘현실적이 되라’(to be relevant), ‘멋있게 보이라’(to be spectacular), ‘힘이 최고다’(to be powerful)라는 것이다.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현실 지향 유혹과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유혹과 십자가 대신에 지배력을 가지려는 유혹이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힘의 유혹에 빠져든 행태를 개탄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 등 바로 이 힘의 시험에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로는 자신의 신성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힘을 복음 선포의 유용한 도구로 간주하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힘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데 쓰여진다면 좋은 것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 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이런 합리화 때문에 십자군도 생겨났고, 종교 재판소들이 설립되었고, 인디언들은 노예화되었습니다. 또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들을 바라게 되었고, 감독들의 대저택과 현란한 교회와 화려한 신학교들이 설립되었으며, 양심에 대한 슬한 도덕적 조작이 자행되었습니다.”<sup>2)</sup>

1) 헨리 나우웬,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출판부 역(서울: 두란노 1998), pp. 17-71.

2) Ibid., pp. 57-58.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현실지향에서 기도로’(from relevance to prayer), ‘유명세에서 목회로’(from popularity to ministry), ‘인도하는 자리에서 인도 받는 자리로’(from leading to being led)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 리더십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지 세속적인 성공주의를 기초로 리더십을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 2. 연구 목적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의 책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A Call to Christian Leadership*)에서 세상과 다른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더십이 교회와 세상이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리더십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속적 경영의 모델을 그리스도인의 비판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혀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을 소개하셨기 때문이다.”<sup>3)</sup>

3) 존 스토틀,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역(서울: IVP, 1989), p. 28. 이 책은 존 스토틀의 책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현대 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의 제 17장 결론 부분만 떼어서 출간한 것이다. 스티븐 코비는 500페이지 분량의 리더십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만 그것 자체가 기독교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는

리스 앤더슨(Leith Anderson)은 그의 책 「21세기를 위한 교회」(*A Church for the 21st Century*)에서 21세기의 지도자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미래로 향하는 도로상에 있다고 했다.<sup>4)</sup> 이러한 빠른 속도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적 리더십을 정립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이 무엇일까?<sup>5)</sup> 본 연구는 “성경적 리더십이 어떤 표지를 갖는

없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박창규 역(서울: 김영사 2001), pp.152-164를 참고하라. 그는 세 가지 지도력을 말하고 있다. 강압적 지도력(coercive power), 실리적 지도력(utility power), 원칙 중심의 지도력(principle-centered power)이 그것이다. 그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남아 있는 나침반의 진북(true north)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연법칙, 즉 원칙을 중심으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제시했다(Ibid., pp. 141-142). 원칙 중심의 리더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배우고, 서비스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다른 사람을 믿으며, 균형 잡힌 삶을 살며, 인생을 모험으로 여기며 흥미하고 재미있게 지내며,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상태인 시너지를 활용하며, 자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Ibid., pp. 42-52).

4) 리스 앤더슨,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서울: 솔로몬 1997), pp.74-77. 그는 “21세기 교회를 위한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답하고 있다. 즉 새로운 지도자들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며,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변하는 세대에 적응력이 있어야 하며, 인간관계가 좋아야 하고, 좋은 의사소통을 갖는 사람이어야 하며, 진취적이어야 하고 모험할 줄 알아야 하며, 경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며, 기독교의 고결성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시련을 이길 줄 알아야 하며, 기도의 응답을 가져야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살아야 하며, 거짓과 꾸밈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5) 참고로 로리 베스 존스(Laurie Beth Jones)는 남성적이며 권위적인 힘의 사용에 기초한 알파경영(Alpha management)과 여성적이며 상호 협조적인 힘의 사용에 기초한 베타경영(Beta management)을 상호 연계시키고

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필자는 그것을 Servant Leadership으로 보았다.

### 3. 연구 방법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고, 둘째 서번트 리더십의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 때 받으신 사명의식과 바울의 사명의식, 그리고 교회론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셋째 서번트 리더십과 권위의 관계, 넷째 서번트 리더십과 불의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4. 정의

론 베이머(Ron Boehme)는 그의 책 「21세기 지도자」에서 리더십을 올바르게 정의했다.

고양시키는 오메가경영(Omega management)을 소개하고 있다(로리 베스 존스 「최고경영자 예수 JESUS CEO」, 송경근·김홍섭 역, 서울: 한국 언론자료간행회, pp. 19-22). 그녀는 예수님의 오메가경영이 남성적인 알파경영과 여성적인 베타경영을 결합한 것보다 월등하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오메가 리더십’을 제시한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찾아낸 85가지의 리더십 지침들을 자아극복의 강점, 행동의 강점, 인간관계 형성의 강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너무 많은 지침들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적인 지침은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리더십이란 권력이나 신적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의 영향력이다.”<sup>6)</sup>

계속해서 그는 리더십과 관련된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리더십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개의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섬김일 것이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sup>7)</sup>

‘섬긴다’ 또는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452회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Servant Leadership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림이 되는 것이다.<sup>8)</sup> 그러므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6) 론 베이미, 「21세기 지도자」, 허광일 역(서울: 예수전도단 2000), p. 93. 찰스 스윈돌은 리더십을 ‘영감 있는 영향력’(inspiring influence)으로 정의하고 있다. Charles R. Swindoll, *Leadership: influence that Inspires*(W.T.: Word Books Publisher, 1985), pp. 19-20을 참조하라. 어원적으로 ‘leadership’이란 단어는 앵글로 색슨의 고대 영어 ‘레단’(ledan)에서 나온 것으로 ‘리탄’이 어근이다. 이것은 ‘가다’(go)라는 뜻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십」(서울: 쿰란출판사 1995), p. 30을 참조하라.

7) 론 베이미, op. cit., p. 114.

8) Ibid., p. 115. 헬라어에는 관직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으로 arche, archon, time, telos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이 어휘들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관직들에는 적절히 적용하나, 그리스도의 교회 내의 어떤 직분에도 적용하지 않았다.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을 하나의 어휘, 섬김, 즉 diakonia로 나타내는 놀라운 언어사용의 통일성을 보인다. 이 헬라어들은 모두 직분자의 지배자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 diakonia는 원래 식탁에서 시중 들기의 뜻에서

섬긴다는 의미이며, 섬긴다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sup> 필자는 서번트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싶다. 서번트 리더십이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과 세상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는 영향력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함과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며 주님과 사람들을 섬겨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 II. 서번트 리더십의 성경적 근거

헨리 나우웬은 미래의 교회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그 리더십은 이 세상의 파워 게임을 본뜬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주기 위해 오셨던 섬기는 지도자, 바로 예수 그

섬김의 일반적인 뜻을 갖도록 발달한 말로써 항상 저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활동이라는 뉘앙스를 갖는 말이다. 이 말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 인경에 거의 쓰이지 않는 말인데도 신약의 저자들은 이 말로 교회 내의 모든 직분들을 표현하고 이 말에서 파생된 diakonos, 즉 종으로 교회 내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을 부른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사도, 선지자, 복음선포하는 자, 목사, 교사, 이적 행하는 자 등은 성령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나누어주시는 은사로써 다양한 모양의 diakonia를 하는 것이다(고전 12:4-30; 엡 4:11-12; 뱌전 4:10 이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diakonia인 것이다. 김세윤, 「예수와 바울」(서울: 제자 1995), pp. 97-99 참조.

9) 론 베이미, op. cit., p. 116.

리스도의 본을 띤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sup>10)</sup> 론 베이미는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있다.<sup>11)</sup> 지배의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이 그것이다. 그에 의하면 사탄 왕국의 '지배의 리더십'은 기만과 거짓에 기초하며, 공포와 무력과 통제만으로 가동된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섬김의 리더십'은 절대적인 진리와 정직성에 기초하며, 사랑의 동기로부터 가동되며, 본보기의 리더십이자 사랑의 설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하면서 그는 섬김의 리더십을 제시했다.<sup>12)</sup> 폴 시다(Paul Cedar)도 「섬기는 지도자」(*Servant Leadership*)라는 그의 책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이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예수님, 바울, 다윗 등을 통하여 성경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 1. 예수님

10) 헨리 나우웬,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 출판부 역(서울: 두란노, 1998), p. 46.

11) 론 베이미, op. cit., pp. 71-89.

12) Ibid., pp. 249-256.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여덟 가지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겸손, 권세 아래 있음, 믿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함, 꾸준함과 충성됨,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일하기를 좋아함, 타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함, 지위 또는 신분에 집착하지 않음 등이다.

13) 폴 시다,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서울: 선교횃불, 1992). 이 책은 섬기는 지도자의 성경적인 모델(엡 4:11-13; 고전 11:1), 이상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요 13:14-15; 마 20:25-28), 현실적인 모델(벤전 5:2-3)로 자원함과 즐거움과 모범으로 섬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필자가 본 소논문에서 다룬 서번트 리더십과 불의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Servant Leadership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diakonos)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doulos)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diakonesai)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sup>14)</sup>

제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위에서' 군림한다. 그러나 종은 그들 '가운데에서' 섬긴다. 세상의 통치자는 그가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한다. 그러나 종은 말하지 않고 '보여'준다. 본을 보이다. 세

14) KJV 영역본의 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ut Jesus called them unto him, and said, Ye know that the princes of the Gentiles exercise dominion over them, and they that are great exercise authority upon them. But it shall not be so among you; but whosoever will be great among you, let him be your minister; And whosoever will be chief among you, let him be your servant: Even as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상의 통치자는 힘에 기초하지만 종은 순종에 기초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지배자형의 리더십을 배격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종으로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의 모형이 있다. 제일 높은 자가 섬긴다. 리더십은 종 됨(servanthood)이다.”<sup>15)</sup>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 그리고 섬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들 중에는 세족식과 유월절 만찬이 있다. 세족식은 섬김의 모범에 대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각적 교훈이다.<sup>16)</sup>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위대한 섬김이며,<sup>17)</sup> 십자가의 구속사역

15) 제위현(Chua Wee Hian), 「오늘을 위한 성경적 리더십」 권영석 역(서울: IVP, 1990), p. 17. 그는 70여 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국제 기구인 IFES(International Fellowship of Evangelical Students)의 전 총무로서 「생애의 반려자」와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의 저자이기도 하다.

16)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요한복음」(서울: 규장문화사, 1999), p. 294. 세족식은 십자가 사건을 통한 정결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적인 측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강조하는 실천의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인이지만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본을 보였으니 그들도 서로를 종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의 혜택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 드러내오자 하셨다. 현재완료수동태분사인 “목욕한 자들”(요 13:10)이란 표현은 스스로 목욕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목욕시킴을 받은 자들이다. 목욕의 결과로 정결해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17)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요한복음」(서울: 규장문화사, 1998), p. 331.

은 섬김의 극치이다.

## 2. 바울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로 임명 받았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초대 교회의 공인된 지도자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다. 또한 그는 로마 시민이었으나 자신의 직분을 묘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doulos’(종)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sup>18)</sup>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였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edoulosa)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 9:19).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doulos)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

특히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이중적인 전파가 있어야 함을

18)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항상 하나의 섬김(diakonia)으로 지칭한다(롬 11:13; 고전 3:5; 고후 6:3 등).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회의 종(diakonos)으로 지칭하며(고후 3:6, 6:4, 11:23; 엡 3:7; 골 1:23 등), 또한 비하의 뜻이 한층 더 강한 doulos로 지칭한다(롬 1:1; 빌 1:1; 고전 9:19; 고후 4:5; 딤후 1:1).

분명히 말해 준다. 즉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의 대리자들의 종(doulos) 됨을 전하는 것이다. 제위현은 이 점을 간파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의 대리자들의 종 됨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우리의 전파가 종으로서의 우리의 사역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면 복음은 훨씬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다.”<sup>19)</sup>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아볼로와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약간은 가치를 손상시키는 듯한 대명사를 끌어다 쓰고 있다. 그는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입니까?”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볼로는 무슨 물건이며 바울은 무슨 물건입니까?”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중성 대명사 ‘무엇(what)’을 사용하였다. 그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중들(diakonoi)이다”고 말했다.<sup>20)</sup>

19) 제위현, op. cit., p. 20.

20) ‘종’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중 ‘doulos’ 외에 잘 알려진 또 다른 단어는 ‘diakonos’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 30회 가량 등장하고 있으며, 같은 어원을 가지는 ‘diakoneo’(섬기다)와 ‘diakonia’(섬김, 봉사)는 70구절 이상 인용되고 있다. ‘diakonos’는 본래 식사 시중을 드는 자 혹은 종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르다나 베드로의 장모에 의한 봉사는 ‘diakonia’로 기술되었다(눅 10:40; 막 1:31). 눅 22:27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식사 시중을 드는 자로 묘사하셨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실제적인 봉사 혹은 사역에 있다. 이 같은 섬김의 개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어를 쓰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기 위해 일급 명을 임명하는 데에서 강조되고 있다(행 6장). 이 개념은 리더십을 단지 특권이나 권위와 동등시하지 않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고전 3:5).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이 본문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doulos’나 ‘diakonos’가 아니다. 그것은 ‘huperetes’인데 문자적으로는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under-rower)을 의미한다. 바울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들’처럼 아래에서 기꺼이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다.<sup>21)</sup>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 그것은 기능적이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위임된 것이다. 특권이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는 면에서만 그렇다(Ibid., p. 22).

21) 데이비드 피셔(David Fisher)의 견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조수(huperetai)이다. David Fisher, *The 21st Century Pastor: A Vision Based on the Ministry of Paul*(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pp. 211-212. ‘휘페레테스’(huperetes)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일반 헬라어에서는 흔하게 쓰는 말이다. 어원학적으로 보면 흔히 이 말은 자기 주인의 배에서 노젓는 그리스 로마의 갤리선 노예(the Greco-Roman galley slave)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용례로는 이 말이 다소 다른 어떤 것을 뜻하였다. 그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묘사하였다. 그리스 문학에서 헤르메스(Hermes)와 제우스(Zeus)와 아폴로(Apollo)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델피(Delphi)의 예언자들을 ‘휘페레

서 말하고 행동하며 섬겼다.

### 3. 다윗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였다.<sup>22)</sup> 시편 기자는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시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시 78:70-72).

타이'(huperetai)라고 하였다. 견유학과(Cynic)와 피타고라스 학파(Pythagorean)의 철학자들도 그들의 철학의 높은 권위에 대한 대변자로서 일하는 '휘페레타이'(huperetoi)였다. 의사의 조수는 의사를 대신해서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 '휘페레테스'였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 말한다(K. H. Rengstorff,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trans. Geoffrey W. Bromiley(Grand Rapids:Eerdmans,1964~76), 8:533-534). 이 단어에 대한 신약성경의 용례도 이와 비슷하다. 복음서에서 '휘페레테스'는 법정의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 쓰였다(마 5:25). 사도행전에서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휘페레테스' 혹은 '조수'였다. 각 경우에서 '휘페레테스'는 다른 사람의 뜻을 수행하는 봉사를 나타낸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행한 목회의 임무를 이 말로써 설명한다. 사도 바울과 목사 아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이'이다. 그들은 주님을 대표하고 대변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조수이다.

22) 이승장,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서울: 규장문화사, 2001), pp. 288-291.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 양들과 일단의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섬기고 급기야 한 나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다윗 또한 섬기는 지도자인 것이다. 다윗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로 호칭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종'으로 자칭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호칭해 주신다. 아브라함(창 18:3, 5, 22-33, 26:24), 모세(민 12:7; 신 34:5; 수 1:1, 2, 7 등), 여호수아(수 24:29; 삿 2:8), 삼손(삿 15:18), 사무엘(삼상 3:10), 솔로몬(왕상 3:7), 엘리야(왕하 9:36), 느헤미야(느 1:6, 8), 욥(욥 1:8), 야고보(약 1:1), 베드로(벧후 1:1), 유다(유 1:1) 등은 하나님의 주 됨과 자신의 종 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 III. 서번트 리더십의 내용

필자는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내용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 때 받으신 사명의식과 바울의 사명의식, 그리고 교회론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 1. 성육신

헨리 나우웬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성육신의 의미를 여러 번 강조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예수로 성육신하신 곧 육신의 마



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최상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때면 두려움과 소외감과 절망이 우리 영혼에 물려올 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철저히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p>23)</sup>

“기독교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의 영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하며, 거기에서 바로 그들의 말과 충고와 지침들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sup>24)</sup>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육신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육신 안에 산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몸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전체의 몸 안에 사는 것이며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sup>25)</sup>

섬김의 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깨닫는 것이다. 성육신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과 태도가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종에서 종보다 더 낮은 극형 죄수 곧 십자가형 죄수로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이러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체득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섬길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십자가 밑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23) 헨리 나우웬, op. cit., pp. 27-28.

24) Ibid., p. 33.

25) Ibid., p. 49.

섬기고자 하는 지속적인 동기 유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서 보내는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sup>26)</sup>

## 2. 사명의식

### 1) 예수의 세례와 시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마 3:13-17; 막 1:9-11; 눅 3:21-22).<sup>27)</sup>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시 2:7과 사 42:1을 혼합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사야 42장 1절의 인용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들로 알려진 본문들의 시작이다.<sup>29)</sup>

26) 제위헌, op. cit., p. 21.

27)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요 1:29-34).

28) 김세운, op. cit., pp. 17-20. 시 2:7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한 약속(삼하 7:12-16)을 이어받아 여기에 인용되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 왕위에 등극하고 대관을 받은 것이다.

29) 이사야 42장에서 53장까지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들을 보면 주의 종의 임무가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주의 종은 성령으로 무장되어(사 42:1, 61:1),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모으며(사 42:7, 49:5-6, 61:1 이하), 새 언약을 세우며(사 42:6, 49:8), 스스로를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드리며(사 52:13-53:12),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을 전달하는(사 42:6, 49:6) 등의 임무를 가진다(Ibid., p. 20). 신약은 사 52:13-53:12에서 10번 문자대로 32번 암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Ibid., p. 215).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사명이 시 2:7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주의 종의 노래들에 의하여도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나단의 예언을 따라 성전을 새로 세우는 임무를 완수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드림으로써, 즉 이사야에 예언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사 42:6, 49:6, 53:10-12)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완수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은 세례시 하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얻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sup>30)</sup> 광야는 예수님께서 세례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사귀는 나뭇으로써 그의 메시아적 사역을 준비할 만한 장소였다. 그때에 사탄은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도록,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30) 김세윤 교수는 광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Ibid., p. 26). 첫째 땀수와 약령들의 거처이다(레 16:10; 사 13:21, 34:14, 12:43). 둘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호 2:14-15). 셋째 종말에 메시아가 그곳으로부터 오게 된다(사 40:3).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별받은 기간이나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는 기간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상징적 숫자이다(Ibid., pp. 26-27).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아 때의 홍수가 40주야 동안 계속되었다(창 7:12).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으며(출 16:35; 시 95:10),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되었다(삿 13:1).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지냈다(출 34:28, 24:18; 신 9:9). 엘리야도 40주야 동안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왕상 19:8).

뛰어내리도록, 높은 산에서 자기에겐 절하여 세상의 나라들을 얻도록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 세 시험들은 모두 세례 때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시도였다.<sup>31)</sup>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때 주의 고난 받는 종으로서 스스로를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메시아적 사명에 충실하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의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셨고 주의 고난 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때 받은 사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도 종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명에 붙들린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붙들린 자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명이 있기에 섬기는 것이다.

## 2) 바울의 다메섹 사건<sup>32)</sup>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여 가고 있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 만남에서 바울

31) Ibid., p. 34.

32)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가리키는 그의 많은 직·간접적인 언급들은(고전 9:1, 15:5-10; 갈 1:13-17; 빌 3:4-11; 고후 3:4-4:6, 5:16-21; 행 26:4-18)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논쟁적인 맥락에 등장한다.

은 복음과 함께 이방인에게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 즉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sup>33)</sup>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결국 하나님의 원수로 날뛰던 교회의 핍박자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교육도 받았다. 그는 랍비로서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이었으며 바리새파, 아마 그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계열이었던 삼마이 학파에 속하여 있었다. 율법과 이스라엘 선조들의 유전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하여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였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힌 나사렛의 예수를 하나

그러나 이 구절들만 아니라 다메섹 사건을 예시하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그의 복음과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만 근거하며, 그는 그 빛에 비추어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 신학과 사도로서의 그의 실존의 근거이다(김세운, 「바울복음의 기원」(서울: 엠마오, 1994, p. 57).

- 33)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바울 복음의 내용인 것이다(갈 1:15 이하; 롬 1:2 이하; 9; 고후 1:19 이하; 살전 1:10; 행 9:20). 바울은 그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의 계시로부터 받았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 바울과 그의 신학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김세운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결론이기도 하다(Ibid., p.217, 547-556).

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의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또한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비판하는 일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위협하고 그것들로부터 배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바울은 비느하스나 마타디아스 및 그 외의 하나님, 율법, 이스라엘의 순결에 ‘열정을 가진 자들’(Zealots)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던 것이다.<sup>34)</sup>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구원의 빛을 진 것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opheiletes)라”(롬 1:14).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사도직으로 섬기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보았다(고전 9:16; 롬 11:13). 그는 이방인들을 성실히 섬겨(diakonia) 구원의 빛을 갚으려고 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의 식이 이방인들을 섬기게 한 것이다.

### 3. 교회론

로렌스 O. 리처즈(L. O. Richards)와 클라이드 홀드키가 공

34) Ibid., pp. 547-548.

저한 「교회 지도자 신학」이라는 책에서, 교회의 리더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리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에 머리로 세워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sup> Servant Leadership은 올바른 교회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일웅 교수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이며, 예배공동체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의 공동체인 것이다.”<sup>36)</sup>

35) 로렌스 O. 리처즈, 클라이드 홀드카, 「교회 지도자 신학」(서울: 정경사, 1983), p. 14. 구약에서 ‘머리’(r’osh)라는 단어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도자들에게 법적인 권위가 부여되었다(출 18:21-22; 신 1:15; 사 11:11). 그러나 신약에서 ‘머리’(케팔레)는 복음서 33회, 사도행전 5회, 서신서 12회, 요한계시록 18회를 비롯하여 약 75회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 예는 한 군데도 없다(Ibid., pp. 15-16). 신약성경에서 이 용어는 어떤 직위(posi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relation)를 의미하는 것이다(Ibid., p. 21).

3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개론」(서울: 솔로몬, 1996), p. 20. 그는 교회의 본질을 네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교회, 섬김을 위한 봉사의 기구로서의 교회이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교육하는 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봉사하는 일로 설명했다(Ibid., pp. 18-22).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엡 5:23).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몸의 지체는 함께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 어에서 교회(kirche)란 말은 주님(Kyrios)이란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sup>37)</sup> 교회론을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더욱 드러난다. 교회론에 기초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은 그분의 종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 IV. 서번트 리더십과 권위

존 스토티의 주장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 리더십이란 용어는 결코 지배권(lordship)과 동의어가 아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섬김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리더십에는 어떤 권위가 부여되어 있으며 또 그러한 권위가 없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에 그것을 행사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바는 지배자로서의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의 겸손에 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권위는 힘이 아니라 사랑이며, 강요가 아니라 모

37) Ibid., p. 17.

범이며 위압이 아니라 합리적인 설득이다. 지도자들은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은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손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다.<sup>38)</sup>

론 베이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겸손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며, 그것은 군림하는 리더십과는 정반대의 것이다.”<sup>39)</sup>

“예수님께서 겸손할수록, 그는 수많은 영역을 통해 보다 많은 권위를 갖게 마련이다. 온전히 위탁하는 그의 태도는 섬김의 도에 대한 표지이며, 그것이 타인들로 하여금 그를 추종하게 하는 권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sup>40)</sup>

데이비드 호킹(David L. Hocking)도 영적 권위의 진정한 기초로 중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sup>41)</sup> 영적 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욕망인 것이다.<sup>42)</sup> 결론

38) John R. W. Stott, op. cit., p. 29.

39) Ron Boehme, op. cit., p. 109.

40) Ibid., p. 251.

41) 데이비드 호킹,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pp. 228-231. 영적 권위의 진정한 기초로 제시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 경건한 생활 방식,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중의 마음 등이다.

42) 성직자가 영대(stole)를 착용하는 일차 목적은 성직자의 위치와 권위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의 멍에를 메는 것을 표상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대는 목 부분에서 멍에처럼 가늘게 되어 있다. 다음 책을 참고하라. Paul H. D. Lang, *What an Altar Guild Should Know*(S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8), p. 90.

적으로 우리의 삶과 태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권위를 주는 것이다.

## V. 서번트 리더십과 불의에 대한 저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막 12:17).<sup>43)</sup>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전자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국가의 통치자가 폭군일지라도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후자에 강조를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절대적 요구,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이사의 화상을 떠는 로마의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떠는 인간은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다.”<sup>44)</sup>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심지어 폭군들에게도 순종하여야 한다

43) 로마의 가이사의 식민통치와 그에 의해 세워진 헤롯의 통치를 지지하며 “로마의 평화”(pax Romana)의 덕을 누리던 헤롯당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헌신하며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십계명 제1계명의 위반으로 보고 그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결사반대하였던 열혈당에 내심 동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공동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올가미 질문을 제기했을 때 답변하신 말씀이다.

44) 김세훈, 「예수와 바울」, p. 92.

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로 불렀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눅 13:32).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로마 황제와 그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이다.

바울도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여 통치하는 현실을 스스로 체험하였다(고후 11:25 이하; 행 16:22 이하; 37). 그런 때는 핍박을 각오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행 5:29)는 원칙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견지하였던 것이다(롬 13:1-7; 벧전 2:13-17; 딤후 3:1; 딤후전 3:2). 하나님의 종(diakonos)들이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에는 무비판적으로 순종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선행을 하게 돕도록 임명된 하나님의 종들이다.<sup>45)</sup> 칼빈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주석하면서 왕들이나 통치자들도 섬기기 위해 통치한다고 했다.<sup>46)</sup>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로서의 섬기는 사명을 잊고 불의를 행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폭력으로 대항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의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Servant Leadership에 포함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와 헤롯의 통치에 비판적이었고, 집권층 사두개파에 항의하셨으며, 자만과 안일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도전하셨듯이 불의한 통치자들

45) 사도 바울은 롬 13:1-7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① 통치자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② 그들은 하나님의 종(diakonos)들이다. ③ 그들의 임무는 선행을 장려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것이다. ④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세금을 바쳐야 한다.

46) 존 칼빈, 「신약성경주석 9. 에베소서」(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pp. 372-373.

과 지배층을 과감히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과 저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말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sup>47)</sup>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항하셨으며, 그것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종종 시위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셨다(마 11:19; 눅 7:34).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47) 김세운 교수는 성전청결(막 11:15 이하)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상징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즉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폭력을 동원한 혁명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운 교수가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475m×300m의 넓은 성전 바깥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② 당시 유월절 잔치를 위해 성전경찰뿐 아니라 성전 북서쪽 벽에 솟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며 감시하고 있던 로마군대 500-600명이 웬만큼 큰 소요사태에는 즉각 개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태도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사건은 하나의 폭력적 혁명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른 예수의 선지자적 또는 메시아적 상징행위임을 알 수 있다. 김세운 「예수와 바울」, pp. 114-115). 예수님의 의도는 타락한 성전과 폐역한 성전관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을 것과 그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새 성전을 건축할 것을 공포하는 것과 실제로 이 일들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그의 성전 청결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새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선포와 그 일들을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는 양면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김세운 교수의 “예수와 성전”이라는 글을 참조하라(Ibid., pp. 119-165). 참고적으로 존 스토틀은 기독교적 리더십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를 말하고 있다(John R. W. Stott, op. cit., p. 37). 즉 분명한 비전, 열심 있는 근면, 끈질긴 인내, 겸손한 섬김 그리고 강철 같은 훈련이다. 그가 말하는 비전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깊은 불만족과 가능한 상태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비전은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며, 다른 대안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다(Ibid., p. 14).

뜻대로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심한 이후 예수님께서  
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셨고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탄  
의 시험과 같은 방해의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저항하  
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저항하신 것이  
다. Servant Leadership은 항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Servant Leadership 속에 강함이 있는 것이다. 헨리 나우웬은  
자신이 말하는 무력함과 겸손의 리더십이 유약한 리더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  
성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힘과 지배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powerlessness)과 겸손의 리더십이며, 그 속에서 고통받  
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십은 단지 자신의 환경의 수동적인 희생물이 되  
는 그런 심리적으로 유약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힘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리더  
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힘이 없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죽어 없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  
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생명을 찾고 또 풍성히 찾을 것이라고 언제나 믿  
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sup>48)</sup>

## VI. 제언

김명혁 교수는 한국교회를 여섯 가지로 진단하고 있다.<sup>49)</sup>  
첫째 한국교회가 큰 사업과 더 큰 교회를 추구하는 허영심을  
가지도록 조장함으로써 대교회주의와 물량주의를 초래했다  
는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가 성적 부도덕, 사치와 향락 등으  
로 세속화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민중신학은 신의 자리를 정  
치, 경제, 사회학적 인간으로 대치한 치명적인 신학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넷째 한국의 일부 급진주의 문화신학자들  
은 기독교와 한국의 종교 문화적 전통과의 중합을 과도하게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 앞에 무력한 모습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  
섯째 이웃사랑과 세계보편주의를 표방해야 할 교회가 개인주  
의,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 그 속성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명혁 교수는 이러한 진단에 대한 처방으  
로 신관의 재정립, 인간관의 정립, 문화관의 정립, 통일 및 선  
교관의 정립, 내세관의 정립을 촉구했다.<sup>50)</sup>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대안을 추가하고 싶다. Servant Leadership을 가진 기독  
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  
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8) Henri J. M. Nouwen, op. cit., pp. 61-62.

49)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서울: 규장문화사, 1998), pp. 22-27.

50) Ibid., pp. 28-31.

## 1. 기도로 서번트 리더십을 체득하라

남가주 사랑의교회(현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는 “섬김이 핵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01년 1월 21일 주일 오전 설교를 했다. 그는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섬김은 바디 메모리(body memory)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섬김은 머리에서 끝나는 이론이 아니다. 섬김은 몸에 배어야 한다. 그러면 Servant Leadership이 어떻게 바디 메모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필자는 Servant Leadership이 기도로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의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신 사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물로 드리셨다. 주기철 목사(1897-1944)는 신사참배 반대로 1944년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7년 간 옥고를 치르면서 다섯 가지 기도제목を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sup>51)</sup>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외에 살고 외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손양원 목사(1902-1950)도 신사참배 반대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투옥되었으나 옥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로 보냈으며, 공산당의 총탄에 맞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자기를 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sup>52)</sup> 우리의 신

51) Ibid., pp. 42-44.

앙의 선배들도 기도를 통하여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sup>53)</sup>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며, Servant Leadership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지도력’ 보다는 ‘섬김’이 우선임을 기억하라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들이 섬김 받는 신분의 직분으로 바뀌는 것은 사명의식의 부재, 성육신과 교회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중됨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섬김이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sup>54)</sup> 이러한 견지에서 론 베이미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 하나로 예수님께서서는 권력에 입맛을 다시는 식의 리더십에 대한 모든 개념을 영원히 말살시켜 버리셨다. 그분은 리더십의 본질이 타인에 대한 섬김인 것을 알고 계셨다. 진정한 리더십은 우리가 몇 명을 통제하느냐

52) Ibid., pp. 45-46.

53) 리더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명성훈, 「성경 속의 리더십 마스터키」(서울: 국민일보, 2000), pp. 109-127. 명성훈 교수는 성령님을 신적 지도자(Divine Leader) 혹은 지도자 중의 지도자(Master Leader)로 인정하고 모셔들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54) Chua Wee Hian, op. cit., p. 18.



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을 섬기느냐에 의해 측정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보이셨던 것이다. 그분은 ‘섬김’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 따라서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우리도 것처럼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sup>55)</sup>

필자가 강조하거니와 Servant Leadership에서는 ‘Leadership’보다는 ‘Servant’가 우선이다. 당신은 지도력(leadership)을 우선으로 하는가 아니면 섬김(servant)을 우선으로 하는가? 이 둘은 극과 극이다. “당신은 어떻게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심중에 사사로운 이를 생각하며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위해 섬기는가?

우리는 선 종(servant-first)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 3. 서번트 리더십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경영 분석과 교육의 전문가인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Greenleaf)는 “정당한 힘과 위대함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부제를 가진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을 썼다.<sup>56)</sup> 그는 지도자로서의 종이라는 개념을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동방 여행(*Journey to the East*)」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얻

55) Ron Boehme, op. cit., p. 264.

56) Robert K. Greenleaf, *Ser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Paulist Press, 1977).

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레오(Leo)는 한 무리의 여행자들의 하인이었는데 그 여행을 마쳤을 때에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로부터 그린리프는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종으로서 나타난다는 원칙을 도출하여 내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섬기는 일이 단순히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의 지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화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섬김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견지에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결코 조종되거나 경영될 수 없는 것이다.”<sup>57)</sup> 필자가 말한 Servant Leadership의 정의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과 세상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

## VII. 요약과 결론

Servant Leadership이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

57) John R. W. Stott, op. cit., p. 31. ‘조종’(manipulation)과 ‘경영’(management)이라는 단어는 모두 “manus” 즉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기원하였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인간이 마치 인격체라기보다는 상품인 것처럼 ‘다루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된다.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과 세상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는 영향력이다. Servant Leadership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함과 우리의 종 됨을 고백하며 주님과 사람들을 섬겨 모든 족속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Servant Leadership의 성경적 근거를 예수님, 바울, 다윗 등을 통해 찾았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다. 그리고 섬기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 주는 것들 중에는 세족식과 유월절 만찬이 있다. 세족식은 섬김의 모범에 대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각적 교훈이다.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위대한 섬김이며,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섬김의 극치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항상 하나의 섬김(diakonia)으로 지칭한다(롬 11:13; 고전 3:5; 고후 6:3 등).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뿐 아니라 교회의 종(diakonos)으로 지칭하며(고후 3:6, 6:4, 11:23, 엡 3:7; 골 1:23 등), 또한 비하의 뜻이 한층 더 강한 doulos로 지칭한다(롬 1:1; 빌 1:1; 고전 9:19; 고후 4:5; 딤후 1:1). 데이비드 피서의 견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의 조수(huperetai)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섬겼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그 양들과 일단의 블 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섬기고 급기야 한 나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다윗 또한 섬기는 지도자인 것이다. 다윗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로 호칭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종’으로 자칭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라고 호칭해 주신다. 아브라함(창 18:3, 5, 22-33, 26:24), 모세(민 12:7; 신 34:5; 수 1:1, 2, 7 등), 여호수아(수 24:29; 삿 2:8), 삼손(삿 15:18), 사무엘(삼상 3:10), 솔로몬(왕상 3:7), 엘리야(왕하 9:36), 느헤미야(느 1:6, 8), 욥(욥 1:8), 야고보(약 1:1), 베드로(벧후 1:1), 유다(유 1:1) 등은 하나님의 주 됨과 자신의 종 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Servant Leadership의 내용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 때 받으신 사명과 바울의 사명의식, 그리고 교회론에서 찾았다. 첫째 섬김의 원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성육신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과 태도가 달라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되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종으로, 종에서 종보다 더 낮은 극형 죄수 곧 십자가형 죄수로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이러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체득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은 섬길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리더십은 십자가 밑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지속적인 동기 유발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십자가에서 보내는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속죄와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 드림으로써, 즉 이사야에 예언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사 42:6, 49:6, 53:10-12)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임무를 완수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은 세례시 하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얻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자가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의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셨고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때 받은 사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역에 있어서도 종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명에 붙들린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붙들린 자는 Servant Leadership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명이 있기에 섬기는 것이다. 사명은 Servant Leadership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로 날뛰던 교회의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의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 덕분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의 구원의 빛을 진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사도직으로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보았다(고전 9:16; 롬 11:13). 그는 이방인들을 성실히 섬겨(diakonia) 구원의 빛을 갠려고 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의식이 이방인들을 섬기게 한 것이다.

셋째 Servant Leadership은 올바른 교회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봉사의 공동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엡 5:23).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

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 몸의 지체와 생명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회론을 연구할수록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더욱 드러난다. 교회론에 기초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은 그분의 종임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Servant Leadership과 권위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과 태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권위를 주는 것이다.

필자는 Servant Leadership과 불의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옳지 않은 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의한 체제에 대한 저항이 Servant Leadership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이사와 헤롯의 통치에 비판적이었고, 집권층 사두개파에 항의하셨으며, 자만과 안일에 빠진 바리새인들에 도전하셨듯이, 불의한 통치자들과 지배층을 과감히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비판과 저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말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항하셨으며, 그것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하여 종종 시위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셨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며, 죄인들과 먹고 마시셨다(마 11:19; 눅 7:34). 예수님께서 세례 때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심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충실하셨고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탄의 시험과 같은 방해의 세력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저항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

에 저항하신 것이다. Servant Leadership은 항상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Servant Leadership 속에 강함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한국교회를 향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Servant Leadership을 기도로 체득하라고 했다. 섬김은 이론이 아니다. 섬김은 바디 메모리(body memory)가 되어야 한다. 섬김은 머리에서 끝나는 이론이 아니다. 섬김은 몸에 배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며, Servant Leadership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Servant Leadership에서는 'Leadership'보다는 'Servant'가 우선임을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들이 섬김 받는 신분의 직분으로 바뀌는 것은 사명의식의 부재, 성육신과 교회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중됨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셋째 Servant Leadership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섬기는 일이 단순히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의 지도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섬김을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견지에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프로젝트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은 결코 조종되거나 경영될 수 없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면서 Servant Leadership을 갖춘 군선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필자가 말한 Servant Leadership의 정의처럼 교회

의 머리가 되시며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세상에 흠어져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군선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그리하여 한국교회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참고문헌〉

### 1. 原 書

- Fisher, David. *The 21st Century Pastor; A Vision Based on the Ministry of Paul*.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 Greenleaf, Robert K. *Servant Leadership, A journey into the nature of legitimate power and greatness*. Paulist Press, 1977.
- Lang, Paul H. D. *What an Altar Guild Should Know*. St. Louis, Missouri: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8.
- Swindoll, Charles R. *Leadership: influence that Inspires*. W.T.: Word Books Publisher, 1985.

### 2. 翻 譯 書

-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 Boehme, Ron. 「21세기 지도자」. 허광일 역. 서울: 예수전도

단, 2000.

Cedar, Paul.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선교햇불, 1992.

제위현. 「오늘을 위한 성경적 리더십」. 권영석 역. 서울: IVP, 1990.

Covey, Stephen R. 「원칙 중심의 리더십」. 김경섭 · 박창규 역. 서울: 김영사, 2001.

Hocking, David L. 「기독교 리더십의 7가지 원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6.

Jones, Laurie Beth. 「최고경영자 예수 JESUS CEO」. 송경근 · 김홍섭 역.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1.

Nouwen, Henri J. M.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Richards, L. O., 홀드키, 클라이드. 「교회 지도자 신학」. 서울: 정경사, 1983.

Stott, John R. W.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역. 서울: IVP, 1989.

### 3. 國文

강신권. 「21세기를 향한 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1995.

김명혁. 「한국교회 쟁점진단」. 서울: 규장문화사, 1998.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1994.

———. 「예수와 바울」. 서울: 제자, 1995.

명성훈. 「성경 속의 리더십 마스터키」. 서울: 국민일보, 2000.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설교를 돕는 분석누가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승장.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 서울: 규장문화사, 2001.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 1996.

### 4. 註釋

Calvin, John. 「신약성경주석 9. 에베소서」.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